

한중 서해 과학연구 협력 강화로 지역 지속발전을 촉진시키자

조우신칭 박사

남경대학

한중 양국은 모두 서해와 맞닿아 있다. 서해에서의 과학연구 영역은 공동의 흥미가 있으며, 과학연구의 협력 방면에는 비교적 양호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인적 교류와 공동 과학연구 성과의 방면에서는 모두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 환경과 생태·해양관리·해양재해 예보예방 등 방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몇년 사이에, 정부 주도의 과학연구협력 또한 좋은 발전을 보이고 있고,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중심'을 핵심으로 하는 협력연구 작업은 전략적 포지셔닝과 구체적 프로젝트의 실행 면에서 모두 뚜렷한 노선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양국 정부 차원에서 비준한 '한중해양영역 협력규획(2016-2020)'에 따라 해양정책과 제도·해양 기후변화와 방재 및 감제·해양생태환경의 보호 및 관리·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대양과 극지연구·해양 탐측기술 등 6 개의 주요 협력영역을 확정하였고, '한중 해양 핵심안보 검측 및 예측 시스템 연구'와 '서해 및 동해 업무화 해양 예보 시스템 개발 협력 연구'의 두가지 중장기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하였으며, '인공위성 데이터에 기반한 녹조 해양환경 모니터링 연구의 기술개발' 및 '지역 기후를 이용한 서북 태평양 기후 변화 추세 연구'를 가까운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 할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로 삼을 것이다. 이러듯 한중양국이 해양 과학연구방면에서의 기반이 양호하고, 전망이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양국은 서해에서의 과학연구협력 방면에서 두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협력의 단계가 많고, 협력점이 분산되어 있다. 해양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모두 다른 협력내용과 협력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연구성과의 통합이 충분하지 못하다. 다른 하나는 대량의 해양 연구성과를 어떻게 관리와 산업 영역으로 전이를 시키는가이며, 이는 현재 유효한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양국은 이후의 서해해역 과학연구 협력의 과정 중에서 다음 몇가지 방면에 대하여 강화할 수 있다. 첫째, 서해 과학연구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한중양국의 해양영역 과학연구 협력의 목적은 서해의 건강한 생태환경 보호·서해 자원의 지속 이용 가능함 실현·서해의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이 되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를 기초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협력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가지고 있는 양국 간의 과학연구 협력환경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중해양과학 공동연구중심'의 기초에 협력환경 외의 과학연구 역량 및 연구성과를 유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 연구성과와 연구성과를 결집한 적합한 연구환경을 만들어(전문적으로 서해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인터넷 페이지 등), 관리자와 연구자 및 공중에 게시한다. 셋째는 새로운 기제를 만들어 연구성과의 관리중에서의 응용을 강화시키는 것이다.